

# 광산구,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민관학 협치’ 첫발

### 행정·학교·시민 등 100여 명 참여 ‘민관학 끈끈한 발대식’ 상생 교육

광주 광산구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 협치 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학 끈끈한 발대식’이 열렸다.

광산구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주배경 청소년 상생 교육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가 힘을 모으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성·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자원을 잇다! 상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상생 교육의 민관학 공동 참여에 대한 공감과 나아가길 고민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산구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교육환경개선 민관협의체, 외국인명예동장단, 광산구가족센터, 학교, 대학 등 민관학 등 30여 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이주배경 학부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 경험을 지닌 광산구 이주배경 청소년(유치원생 포함)은 지난해 4월 기준

4080명에 이른다. 이는 광산구의 설립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월곡동 7개 학교에 집중 편중돼 있으며, 모학교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6.9%에 달한다.

이날 1부 ‘공감’ 행사에선 광산구의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현안 ‘뚝아보기’를 시작으로, 월곡초등학교 6학년생인 최발레리아 학생과 꿈여울광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은혜 학생이 직접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자신의 꿈 등을 얘기했다.

또 이주배경 한국 청소년의 동반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민관학’의 끈끈한 협력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언어·심리·문화적 지지를 선언하는 ‘우리의 다짐, 상생 서약’ 등도 이어졌다.

‘소통’을 주제로 한 2부 행사에서는 학교와 민간단체, 이주배경 학부모와 학생이 자유롭게 경험과 생각 등을 나누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은 “사회 안전망은 국가정책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마을, 지자체, 학교 등 민관학이 아이들에게 갖는 관심이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 중인 손명동 광주주대 교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계 특별업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력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산구청 운상원홀에서 지난 21일 열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학 끈끈한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지난 3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실, 4월 이주배경 한국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예술놀이 교실 등 이주배경 청소년 상생 교육을 시작한 데 이어 민관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다국어 교실, 심리정서 지원,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어

난 상황에 맞게 우리 교육 체계와 틀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민관학의 끈끈한 연대·협력으로 이주배경 한국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상생 교육의 성공적인 모형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21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21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다양한 이유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국민임대 주택,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184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복지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올해는 광산구 21개 동으로 운영 지역을 넓히고, 대상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시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알고 제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에는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복지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매년 변화하는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복지 정보를 알리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7만 구름인파’ 광산ON뮤직페스티벌, 지역상권 ‘단비’

### 먹거리·공산품 소상공인 매출 증가 다채로운 콘텐츠 외지 관광객 유입

“손님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주문이 너무 밀려서 추가 주문도 받지 못했어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황룡천수공원에서 열린 제2회 광산ON뮤직페스티벌이 인근 상권 이용·매출 증가 등을 견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가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7만여명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2회 광산ON뮤직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신생 축제제로, 광산구는 ‘생동감 넘치는 젊은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추구하며,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축제를 기획했다.

광산구는 특히 지난해 첫 축제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데 힘입어 올해는 뮤직페스티벌, 뮤직피크닉,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구성하고 뮤직페스티벌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뮤지션이 총출동 한 ‘화려한 라인업’과 특별 이벤트로 마련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등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한 점도 축제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콘텐츠 내실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공을 들인 축제로도 평가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먹거리존 외에 지역상생존을 별도로 구성한 것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과 김기숙 부구청장, 최문천 관광육성과장이 지난 4~5일 황룡천수공원에서 열린 제2회 광산ON뮤직페스티벌 현장에서 먹거리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축제장 인근 선운지구 상가들을 축제장 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메인존 내에 무료 입점료 배려하고, 배달존도 운영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총 9개 상가가 배달존에 입점했으며, 광산구는 입점 업체에 음식 배달 접수 매대 및 주문 접수 인력 등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역 상인과의 상생 시도는 광산ON뮤직페스티벌이 많은 인파를 끌어모으면서 축제 기간 내내 먹거리존, 배달존을 가리지 않고 손님이 밀려들었다고 한다.

한 배달존 입점 업체 사장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며 웃음을 지었다.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광산ON뮤직페스티벌 덕을 토포했다. 축제 현장에서 에어컨, 공기정정기 등 가전제품, 여름 이불 등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공산품들이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사회적경제 부스에선 수공예품, 청년이 만든 생활용품, 장남갑 등이 인기를 끌었다.

“광산ON뮤직페스티벌 특수”는 축제장을 벗어나 주변 상권까지 웃게 했다. 축제 동안 황룡천수공원과 가까운 선운지구 상권도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선운지구 내 한 상인은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고, 매출도 100% 이상 상승했다”며 “이런 행사와 축제를 자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관광객 유입 효과도 확인됐다. 광산구가 뮤직페스티벌 스탠딩존 참여자 87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강원, 제주 등에서 온 방문객만 28%로 집계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민주적 참여 높여야”

### 다변화된 주민 요구 정책 반영 위해 자치회 역할 중요

#### 공병철 광산구의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진)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한 주민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고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그 가치가 퇴보하고 있다”며 “지난 21년간 개최됐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23년 명맥이 끊겼으며,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위원 수를 축소하고 운영 관련 지원 근거 등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광산구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꾸준히 전환해 왔고, 올해 임곡동, 동곡동을 마지막으로 21개 동의 전면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다변화된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특히 “현재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중앙지원조직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주민의 호응도는 높으나 40대 이하 주민의 인지와 참여 의사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주민이 자치분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주민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주민과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움직이지 않고 기능과 의제를 공유하며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구현해 주민주권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